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황제 노역이 도대체 뭐야? 세상 잡사에 약간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동안 활자중독증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기분도 있고 해서 신문의 사건기사는 큰 제목만 보고 대충 넘어가는데 '황제 노역'이란 단어는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았다. 황제가 하는 노역이라면 백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동인가? 웬걸 기사를 훑어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였다. 어안이 병병하였다. 허주호 前 대구그룹회장이 하루 벌급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노역장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0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이래저래 부은 돈, 거금 2억 원 가까이 받아 나오면서 퇴직의 설비함을 어느 정도 위로받았는데, 그 누구는 하루에 5억이라니, 그야말로 억 하는 심정이다.

공정 사회를 위한 '두 수레바퀴'

그 후 황제노역과 관련된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한국사회의 병폐와 도덕성의 위기가 총체적으로 표현된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첫 번째가 '연고 정실주의'이다. '향판'이라는 제도(처음 들어봤다)의 틀 속에서 20여년 고향에서 판사생활을 한 분이 일당 5억 노역판 결을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고향에서 벼슬을 할 수 없게 하여서 '낙향'이란 단어를 벼슬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마도 향판제도가 고향을 사랑하듯 고향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로 만들었을 것일진다. 이것이 못된 연고정실주의의 마당을 제공한 꼴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권력 있고 돈 많은 지역 유지들이 뽐뽐 뽐뽐 연고정실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지도층이 얼마나 사회적 공덕성이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허주호 씨의 뉴질랜드에 있는 17개 회사는 모두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 컴퍼

니라고 하며, 많은 재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를 협박해 5억 원을 갈취한 시행업자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여분이 들끓자 사실상 관계에 있는 부인이 골프장을 담보해 벌금을 대신 갚겠다고 하니 가히 는 가리고 아웅 격이다. 게다가 허 씨의 재산은너를 도와주기 위해 변호사, 전직 언론인 등이 차명계좌를 제공하였더니 끼리끼리의 비도덕적 담합 행위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아마도 일당 5억 노역을 판결한 재판관은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법위는 이 보다 적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법조문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의 유지들이 허 씨의 선처를 위한 탄원을 하였다고 하니 향판으로써의 고뇌도 있었을 것이다. 황제 노역 사건은 한 재판관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구조적, 제도적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 가야 한다. 한 바퀴는 개인의 도덕성과 그 실천에 바탕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이다. 또 다른 바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둔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사회구조나 제도가 비윤리적이라면 개인은 그 함정에 함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사회정의의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서 발생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가는 사회 균열과 파괴이다. 황제 노역 사건은 결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기와 파열을 예고하는 불행한 징후이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이제는 제대로 화를 내고 싶다.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불교, 에너지 절약과 '착한 연등회'

조계종은 3월 30일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소속 사찰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10% 절약을 목표로 실천하고 절전 전구(LED) 사용, 에너지 효율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계종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계종에서 시작되는 불교계의 '녹색 열풍'은 매우 유익하고 반가운 바람이다. 이러한 의식 개혁은 실천이 동반될 때 의미가 있다. 대웅전의 인등을 고효율 에너지 전구로 교체하고 부처님오신날 전국 거리에 걸리는 가로 연등을 LED전구로 바꾸는 작업은 이제 미룰 일은 아니다. 실제 백열전구 인등 7,400개를 사용하는 한 사찰의 대웅전을 LED전구로 교체했을 때 연간 절감비용은 390여만 원에 이르며 5,500개의 백열 인등을 LED전구로 바꿨을 경우에도 290여 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연등축제 시가 되면 연등을 밝히는 전구를 10W짜리 백열전구에서 LED전구로 교체하면 시간당 8W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울시도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 조명을 LED전구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조명보다 최고 8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LED전구로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물론 속제도 존재한다. LED전구가 초기 비용이 적지 않아 일선 사찰에 부담이 많이 되며, 가로 연등의 경우 시중 제품으로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교계가 나서 연등축제 행렬등 중 소형등을 LED전구로 바꾸고, 매연과 소음이 심한 대형 장엄등의 발전기를 배터리로 교체해 LED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같은 불교계의 노력과 일선 업체들의 기술 개발이 '녹색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 고삐 당기자

조계종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740여 일을 넘었다. 오는 12월 22일이면 회향을 한다. 하지만 정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4월 2일 오후 3시 본지가 찾은 조계사 일주문 앞 정진단은 봉축 주간 선포식이 한창인 경내와 달리 적막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시간대에는 정진이 잠혀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문제는 정진 동참자가 매우 한정적이고 재가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쇠신 주체이자 당사자인 스님들의 동참은 3월 동안 6명뿐이었다. 이들 스님은 총 10시간을 1000일 정진단에서 정진했고, 이중 5명은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스님이었다. 종단 수뇌부와 부실장 스님들의 동참은 전무했다.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매일 12시간을 1000일간 이어가는 릴레이 기도'라는 홀

페이저 설명이 무색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계종 종책모임 심화 도량이 나서서 '정진행정의 전향', '종단 수뇌부는 얼마나 정진에 동참했는가' 등을 지적하는 비판 성명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비판을 결사추진본부가 입장문을 통해 수용한 것은 유익한 일이나 정작 정진 동참 확대에 대해서는 "회향일까지 홍보와 조직 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 1000일 정진의 시작은 현 종정 진제 스님의 취임법회가 봉행된 2012년 3월 28일이었다. 이날 진제 스님은 직접 정진의 시작을 증명했고, 강경마을 주민을 비롯해 이웃종교인들이 참여해 정진해 동참했다. 700여 일이 지난 지금, 1000일 정진은 '용두사미'의 기로에 섰다. 다시 한번 정진의 고삐를 어떻게 당길지 결사추진본부는 고민해야 한다.

발언대 '맑고 향기롭게' 20주년에 부처

1994년 법정 스님이 종교계의 사회개혁과 종교간 화합을 위해 출범시킨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3월 30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작은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부대중 5000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년을 한결같았던 회원들의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스스로 하는 것"



윤청광
방송작가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해 결성됐다.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자연을 보존·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며 많은 활동을 해왔다. 순수 시민 모임이 20년을 지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20주년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 스님께서는 시주의 은혜로 살아온 출가사문으로 "생전 밭값은 하고 가야겠기에 이 일 한가지만은 꼭 하고 싶다"며 모임을 발족하셨다. 모임은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홉 가지 실천덕목을 바탕으로 1994년 3월 26일 구룡사에서 첫 출발모임을 가졌다. 번거로운 것, 형식적인 것을 너무나 꺼려하셨던 스님께서 크게 발심을 하고 세상으로 나오신 것이다. 이후 강화, 원주, 춘천, 전주, 광주, 마

산, 대구, 부산 등 스님과 함께 전국을 돌며 대중들을 만나왔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스님의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이 함께했다. 맑고향기롭게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책 읽는 국민을 만들자'는 모토를 가지고 다달이 한 권씩 책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스님께서 법회 때마다 매달 책을 선정 그 중에서도 좋은 대목을 적어와 읽어 주셨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스님께서는 책 읽는 백성이라야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항상 강조하셨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세상에 메아리를 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각각의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또 이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다면 그것이 바로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스님께서는 비록 가셨지만 이 운동은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는다. 스님의 뜻만 잘 이어간다면 100년 200년 후에도 맑고향기롭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 남을 것이다.

'하지 말라'는 스님을 회상하며

고현 (맑고향기롭게 경주모임 본부장)



맑고 향기롭게
고현 본부장이 디자인한 단체 로고

20년 전 법정 스님과 함께 '맑고 향기롭게'를 시작할 때의 일이다. 당시 20여 개쯤 되는 중앙사단법인 이사들과 7~8개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스님과 저희들은 매년 한차례씩 모였다. 각 지부를 돌며 법회를 열기도 하고 서울 길상사에서 법회를 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생생하다. 스님은 항상 "정관계 힘을 빌리지 말라. 홍보 및 광고를 하지 말라. 부자동네에 손을 빌리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스님께 질문했다. "찾아와서 우리 활동을 알려준다는 데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참으로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처음 시작부터 남의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그 도움에 젖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다. 스님께서는 또 "우리의 능력껏 할 뿐이지, 짐을 생각 하고 양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처럼 자립을 원칙으로 출발했다. 스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또 있다. 바로 상을 갖는 것이었다. 스님께서는 문서포교를 오랫동안 하셔서 우리들이 쓰는 언어에 많은 신경을 쓰셨다. 한 예로 맑고향기롭게에서 '자연보호'를 표어로 걸자, 스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보호가 아닌 보존이 맞다"고 하시며 바로잡기를 원하셨다. 스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라며 가르침을 주셨다. 스님 스스로 "관도 짜지 말고, 수의도 입히지 말라. 탐도 부도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다. 오랫동안 모신 제자들은 항상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게 되는 계기로 남아있다. 맑고 향기롭게는 20년 동안 이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단체와 같이 활발한 홍보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님이 항상 강조하신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대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궁회전, 일의상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